

전남, 고령·독신 늘어간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 인구·가족 변화 및 시사점' 발간 20~24세는 유출·50~60대는 유입 늘어...코로나 후 결혼 급감 가족 갈등 주 원인은 경제 문제...“청년 정착·고령 지원책 필요”

전남에서 젊은층인 20~24세 구간의 인구가 계속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반면 60~64세 남성, 50~59세 여성 등 중장년층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34세 구간은 순유출되고 35세 이상은 순유입되는 등 전남의 인구구조가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어 대학의 질적 향상, 취업 가능 기업 유치 및 육성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이 9일 발표한 정책 정보 8호 '전남 인구·가족 변화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전남의 인구는 지난 2003년까지는 20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 2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현재는 180만 명대로 추락했다.

젊은 인구의 이탈이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다. 지난 2022년 자료에서는 20~24세 남성과 여성이 각

각 4.3%, 6.2%가 전남을 떠났다. 교육, 취업 등을 이유로 10대부터 30대까지의 인구가 태어난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 1.391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2년 0.969명으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시·군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광군(1.80명), 가장 낮은 지역은 곡성군(0.54명)이었다.

출산율의 감소 역시 젊은 인구의 이탈과 직결되고 있다. 전남도내에서의 혼인 건수도 크게 감소했다. 2019년 7413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2020년 6035건, 2021년 6201건, 2022년 6181건으로 1300건 이상 급감했다. 세대 유형별 가구 현황은 1인 가구가 28만34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9세

까지의 남성 1인 가구가, 70세 이상부터는 여성 1인 가구가 많았다.

한편 재단이 도민 226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이후 가족 관계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남성 10.4%, 여성 17.1%가 코로나 19 이후 가족 갈등이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가족 갈등이 심화된 가족은 배우자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33.0%), 어머니(30.1%), 아버지(28.9%)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후 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문제'가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19 이후 가장 필요한 일·생활균형 지원정책은 '유연근무제(재택·원격근무, 시차출 퇴근제 등) 이용 활성화'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상미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은 "전남도청은 물론 모든 공공기관이 전남에 젊은이들이 정착하고 이사에 살 수 있는 정책, 1인 고령인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는 정책, 가족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 맛의 시작 9일 광주시 남구 대지동 한 농가에서 정월(음력 1월) 장 담그기에 쓸 메주를 말리고 있다. 날씨가 쌀쌀할 때 담근 장이 골고루 익어 감칠맛을 낸다는 이유에서 음력 정월 전후 장을 담그는 풍습이 생겼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 축사시설 현대화 저리 용자 지원

16일까지 농가 신청 접수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최대 167억원을 연리 1~2%의 저리로 용자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에서 진행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구축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산

면적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용자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처리 시설, 경관개선 시설 설치 등이다. 특히 올해는 1순위 사업대상자에 산란계 축사시설 및 케이지 수산·교체농가, 농립축산식품부 시설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농가를 추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본궤도

전남도, 올 용역비 3억 반영...국내 첫 고속교통망 기대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공약으로 반영됐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올해 정부예산에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비'로 3억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의 검토 기반을 이끌어냈다.

지금까지는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정부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초고속도로는 아직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고속교통망

이다. 개통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활용과 관광객 증가 등 전남 서남권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여기에 초고속도로 효과를 목표까지 연계하기 위해 영암과 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가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2조6000억원, 대불산단대교 1900억원 등 총 2조79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대불산단대교는 '산단단지 진입도로 계획'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외국인 투자 실적 역대 최대

지난해 19건 3억7900만달러 유치...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등 호재

광주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서 광주시 신규 금액은 3억7900만달러(19건)로 집계됐다. 광주시 직접 투자액은 2021년 3000만달러(16건), 2022년 6000만달러(41건)로 성장세를 보이다가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 업종은 전기·전자 1건, 에너지 4건, 식품 제조 4건, 연구개발 1건, 기타 9건이었으며, 국가

별로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덴마크 순이었다.

직접 투자 증가는 엔코테크놀로지코리아(엔코코리아)가 한국을 첨단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분야 글로벌 거점으로 선택해 대규모 중액 투자에 나선 영향이 컸다. 광주시는 전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인공지능과 미래 차를 양 날개로 엔지니어 5개, 혁신기업 200개 유치를 목표로 국내외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은퇴 기술자 활용해 두 토끼 잡는다

전남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니어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집중지원' 대상지로 나주시, 해남군, 영암군, 완도군이 선정됐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은퇴한 지역 기술인력을 활용해 안전점검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겸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60세 이상 은퇴 기술인력 32명의 인건비 1억4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효율적 안전 점검을 위해 국도교

통부는 선정 시군을 방문해 점검인력 교육을 한다. 점검 결과 문제가 큰 시설은 전문가를 투입해 정밀 안전점검을 추가로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공모 시 우선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은퇴한 기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로당을 비롯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사각지대해소 해소도둑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6일까지 공모

전남도가 2024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 희망 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2013년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시작했다. 지역공동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을 지원해 정부 인증 마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예비마을기업 지정 규모는 20개 사 내외다. 지정된 마을기업에는 제품개발비,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 경영자금을 기업당 2000만원 이내

로 지원한다. 경영컨설팅과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도 상시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단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소 지역 주민 5인이 출자하고 전체 출자자 중 70% 이상이 지역 주민으로 구성돼야 하며, 마을기업 입문교육 이수도 필수다.

전남도 대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장 소재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